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6.14

## 인프라 투자 기대와 FOMC 앞둔 관망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양호한 소비 심리 지표 및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 출발
- 소매판매, 금융주, 인프라 관련주가 상승 했으나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강세를 보인 제약, 바이오주의 낙폭이 확대되자 장중 하락 전환
- 그러나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
- 이후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강 보합권 등락을 보였고, 장 마감 직전 상승폭 확대 마감
- 다우 +0.04%, 나스닥 +0.35%, S&P500 +0.19%, 러셀2000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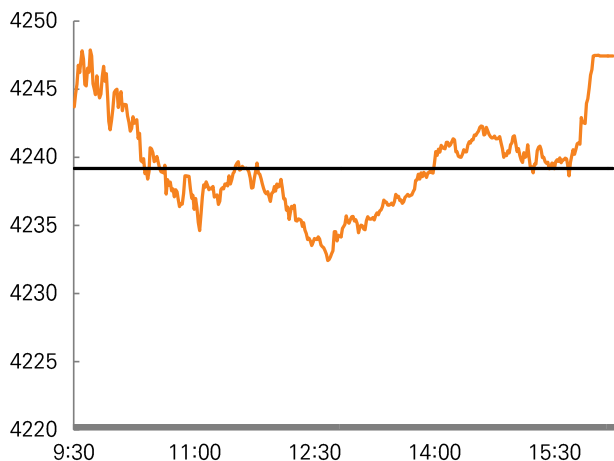
## 특이 종목

- Nvidia(+2.30%)는 자율 주행 차량용 지도를 생성하는 DeepMap 인수 발표로 상승
- 필립모리스(+1.32%)는 3년동안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강세
- 의류 업종은 2027년까지 연 평균 9% 성장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제기되자 강세
- 바이오젠(-4.36%)은 FDA 주요 자문 위원회 위원 3명이 사임 했다는 소식으로 하락
- 버텍스 제약(-10.96%)은 유전 질환 치료제 개발 중단 발표 후 급락

##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04% MSCI 신흥 지수 ETF는 0.3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6.4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8%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가 장중 최근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던 점은 부담.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군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를 높일 수 있기 때문. 더불어 달러화의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부담도 부정적인 요인
-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 후 차익 매물 출회 및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담 등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FOMC를 기다리며 관망세 또한 강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S&amp;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 지수종류    | Close     | D-1   | 지수종류 | Close     | D-1   |
|---------|-----------|-------|------|-----------|-------|
| KOSPI   | 3,249.32  | +0.77 | 홍콩항셍 | 28,842.13 | +0.36 |
| KOSDAQ  | 991.13    | +0.34 | 영국   | 7,134.06  | +0.65 |
| DOW     | 34,479.60 | +0.04 | 독일   | 15,693.27 | +0.78 |
| NASDAQ  | 14,069.42 | +0.35 | 프랑스  | 6,600.66  | +0.83 |
| S&P 500 | 4,247.44  | +0.19 | 스페인  | 9,205.00  | +0.78 |
| 상하이종합   | 3,589.75  | -0.58 | 그리스  | 925.83    | +0.17 |
| 일본      | 28,948.73 | -0.03 | 이탈리아 | 25,717.42 | +0.31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 ①미 국채 금리 ②인프라 법안 ③바이오젠

미국 6월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 발표(82.9)를 크게 상회한 86.4로 발표. 현재 여건지수는 89.4에서 90.6으로, 기대지수가 78.8에서 83.8로 크게 개선. 대체로 현재 상황보다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의 미래 전망 개선이 뚜렷한 모습. 더불어 고용이 안정되고 미국 경제의 더 강력한 성장을 예상케 하는 수치. 한편,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6% 발표에서 이번에는 4.0%로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이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평가

인프라투자와 관련 10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 상원의원 일명 초당파 상원 의원 그룹이 세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계획은 5년 동안 9,400억 달러 또는 8년 동안 1.2조 달러 규모로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와 비슷한 수준.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인프라 협상을 취소하고 대신 5명의 공화당 의원과 5명의 민주당 의원 간 회담에 초점을 맞춘 후 며칠 만에 이루어진 타결 소식. 초당파 그룹 의원들은 “백악관 및 의회 동료들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의 광범위한 인프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발표. 백악관도 이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라고 기대를 표명

이 두 요인은 장 초반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상승을 야기 시켰으며, 이에 힘입어 금융, 소매판매, 인프라 관련주 등의 강세를 이끌었음. 다만, 기술주, 제약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시간이 지나며 전반적인 지수는 하락 전환 하기도 했음. 그러나 오후 들어 국채 금리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기반으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고, 이는 기술주의 반등을 이끔

한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바이오젠(-4.36%)의 알츠하이머 약품에 대한 FDA의 승인 논란이 확대. FDA의 주요 자문 위원회 위원 중 3명이 이번 승인에 대해 반발 하며 사임을 발표. 특히 위원회는 지난 11월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결정 했었음. 그런 가운데 FDA가 이를 승인 하자 검토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위협 했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약물 승인 결정이라고 주장.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오젠과 일라이릴리(-4.05%)가 동반 하락. 그렇지만 카사바 사이언스(+16.05%), 아노비스 바이오(+16.83%) 등 일부 알츠하이머 개발 기업들은 FDA가 설정한 낮은 기준을 감안 바이오젠보다 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며 급등

결국 미 증시는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라는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이오 제약 업종의 부정적인 내용, 최고치 경신이라는 부담 등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이 후 FOMC 등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수급적인 요인과 개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의류 등 소매 판매 업종 강세

Nvidia(+2.30%)는 자율 주행 차량용 3D 지도를 생성하는 DeepMap 인수 발표하자 상승. 이번 인수로 엔비디아는 자율 자동차 산업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으로 전망. 필립모리스(+1.32%)는 3년동안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강세. 인프라 투자 기대로 US스틸(+3.28%), 컨스트럭션 파트너스(+0.89%) 등 강세. 갭(+3.19%), L브랜드(+2.27%), VF코퍼(+4.56%) 등 의류 업종은 2027년까지 연 평균 9% 성장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제기되자 강세

바이오젠(-4.36%)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알츠하이머 약을 FDA가 승인 했다는 결정에 3명의 FDA 주요 자문 위원회 위원이 사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일라이릴리(-4.05%)도 동반 하락. 그렇지만 카사바 사이언스(+16.05%), 아노비스 바이오(+16.83%)는 효능 데이터가 더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급등. 버텍스 제약(-10.96%)은 유전 질환 치료제 개발 중단 발표 후 급락

클라우드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3.30%)는 긍정적인 장기 목표를 발표 했으나 시장 참여자들은 영업이익률이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하락. 덴마크 바이오 업체인 오파자임(-55.57%)은 전일 레딧에서 8번째로 논의가 많았다는 소식으로 장중 한때 1,400%나 급등 후 302% 상승으로 마감. 오늘은 추가적인 매물이 출회되며 56% 급락. 이 종목은 하루 거래량이 1~5만주 거래 되는 종목인데 이날 4,200만주나 거래됨

###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0.67% | 대형 가치주 ETF(IVE)      | +0.17% |
| 에너지섹터 ETF(OIH)     | +0.55% | 중형 가치주 ETF(IWS)      | +0.47% |
| 소매업체 ETF(XRT)      | +1.73% | 소형 가치주 ETF(IWN)      | +1.01% |
| 온라인소매 ETF(IBUY)    | +0.91% | 대형 성장주 ETF(VUG)      | +0.37% |
| 금융섹터 ETF(XLF)      | +0.64% | 중형 성장주 ETF(IWP)      | +0.67% |
| 기술섹터 ETF(XLK)      | +0.60% | 소형 성장주 ETF(IWO)      | +1.05%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0.01% | 배당주 ETF(DVY)         | +0.32% |
| 인터넷업체 ETF(FDN)     | +0.44%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08% |
| 리츠업체 ETF(XLRE)     | -0.63%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20%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0.82% | 미국 국채 ETF(IEF)       | -0.15% |
| 바이오섹터 ETF(IBB)     | -0.67% | 하이일드 ETF(JNK)        | +0.05% |
| 헬스케어 ETF(XLV)      | -0.71% | 물가연동채 ETF(TIP)       | -0.26% |
| 곡물 ETF(DBA)        | -0.52% | Long/short ETF(BTAL) | -0.47% |
| 반도체 ETF(SMH)       | +0.35% | 모멘텀 ETF(MTUM)        | +0.49% |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413.47   | -0.37% | -0.57% | +6.29% |
| 소재      | 539.48   | +0.36% | -2.02% | -1.09% |
| 산업재     | 872.96   | +0.19% | -1.73% | -0.01% |
| 경기소비재   | 1,388.59 | +0.48% | +1.62% | +3.43% |
| 필수소비재   | 727.42   | +0.09% | -0.72% | +0.39% |
| 헬스케어    | 1,448.24 | -0.73% | +1.93% | +1.20% |
| 금융      | 622.55   | +0.61% | -2.38% | +0.49% |
| IT      | 2,489.51 | +0.56% | +1.38% | +6.55% |
| 커뮤니케이션  | 260.93   | +0.00% | +0.82% | +4.96% |
| 유틸리티    | 333.99   | +0.28% | +1.09% | +0.44% |
| 부동산     | 283.61   | -0.59% | +1.95% | +9.31%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차익 실현 매물 Vs. FOMC, 인프라투자

MSCI 한국 지수 ETF는 0.04% MSCI 신흥 지수 ETF는 0.3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16.4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8%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소비자물가지수 소화 후 강세를 보인 미 증시에 힘입어 상승.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 등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영향. 철강, 화학, 반도체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의복, 음식료 등이 부진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비록 장 후반 FOMC 등을 기다리며 상승하며 마감 했으나, 장 중 최근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던 점은 부담.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군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를 높일 수 있기 때문. 더불어 달러화의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부담도 부정적인 요인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3%, 다우 운송지수가 0.98% 상승 했으며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 지수도 1.06% 상승한 점은 우호적. 더불어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개선과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진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 후 차익 매물 출회 및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담 등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FOMC를 기다리며 관망세 또한 강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은 악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비심리 지수 개선

미국 6월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달 발표(82.9)는 물론 예상(84.0)을 상회한 86.4로 발표. 현재 여건지수는 89.4에서 90.6으로, 기대 지수는 78.8에서 83.8로 크게 개선. 한편,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6% 발표에서 이번에는 낮아진 4.0%로 발표.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 지표 호전 등으로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IEA가 2022년말까지 원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더불어 소비 심리지수 개선을 바탕으로 하반기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달러화는 소비심리지수가 예상을 크게 개선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임. 여기에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진 점도 강세 요인. 한편, 전일 ECB의 비둘기적인 통화정책 영향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이어간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등 신흥국 환율이 달러 대비 1% 내외 약세

국채금리는 소비심리지수 개선 및 인프라투자 통과 기대에 힘입어 상승.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어 금리 상승분이 일부 반납

금은 FOMC 앞두고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와 경제 정상화 이슈가 충돌하며 혼조 마감. 곡물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더불어 가뭄 우려를 일시적으로 개선 시킬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도 하락 요인 중 하나.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5.90%, 철근은 3.74% 급등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70.91     | +0.88   | +1.85   | Dollar Index  | 90.555  | +0.53   | +0.46   |
| 브렌트유    | 72.69     | +0.23   | +1.11   | EUR/USD       | 1.2109  | -0.50   | -0.48   |
| 금       | 1,879.60  | -0.89   | -0.66   | USD/JPY       | 109.66  | +0.30   | +0.13   |
| 은       | 28.146    | +0.41   | +0.90   | GBP/USD       | 1.4107  | -0.49   | -0.35   |
| 알루미늄    | 2,464.50  | -0.46   | +0.39   | USD/CHF       | 0.8983  | +0.42   | -0.12   |
| 전기동     | 10,003.50 | +1.15   | +0.49   | AUD/USD       | 0.7708  | -0.59   | -0.40   |
| 아연      | 3,044.50  | +1.65   | +1.13   | USD/CAD       | 1.2158  | +0.51   | +0.61   |
| 옥수수     | 609.75    | -1.09   | +3.09   | USD/BRL       | 5.1181  | +1.22   | +1.36   |
| 밀       | 685.75    | -0.58   | -0.97   | USD/CNH       | 6.3966  | +0.16   | +0.07   |
| 대두      | 1,438.75  | -1.42   | +0.23   | USD/KRW       | 1110.80 | -0.45   | -0.51   |
| 커피      | 159.60    | -0.75   | -2.47   | USD/KRW NDF1M | 1116.45 | +0.37   | +0.52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미국      | 1.452     | +2.00   | -10.16  | 스페인           | 0.355   | -3.10   | -9.60   |
| 한국      | 2.080     | -1.00   | -8.70   | 포르투갈          | 0.352   | -3.50   | -9.50   |
| 일본      | 0.035     | -2.00   | -5.20   | 그리스           | 0.731   | -6.60   | -8.30   |
| 독일      | -0.274    | -1.80   | -6.10   | 이탈리아          | 0.742   | -5.20   | -13.00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